

[BTS매력론] BTS의 글로벌 매력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하며: BTS 글로벌 매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손열

EAI원장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한준

EAI미래혁신센터 소장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시리즈를 시작하며: BTS 글로벌 매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BTS 현상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 대중문화계에도 새로운 현상이다. BTS는 가장 작게 출발해서 가장 크게 성장한 대중문화 아이콘이고 글로벌 대중음악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 커다란 공감을 얻는 뮤지션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보아온 한류와는 폭과 깊이를 달리하는 BTS의 해외 인기몰이를 놀라움으로 지켜보게 된다. 더욱이 이들이 2013년 중소 연예기획사에서 탄생했으며, 알려지지 않은 힙합 아이돌 그룹으로서 해외에 진출하여 그것도 팝의 본고장 미국에서 대성공하여 한국으로 역수입된 데 한층 놀라고 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erican Music Award) 3관왕, 빌보드(Billboard) 뮤직 어워드 2관왕, 2020년 그래미상 지명 등 해외 각종 대중문화상 수상, Dynamite와 Life Goes On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Hot 100' 1위에 오르는 등, BTS가 거둔 성과는 일찍이 한국 대중문화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이 그룹에 도대체 왜 해외 팬들이 열광하는 것일까? 무엇이 이들을 사로잡는 것일까? 수수께끼 같은 BTS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오늘날 BTS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인기를 얻은 한국 출신의 뮤지션이자 셀러브리티인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이들의 엄청난 성공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학술연구로 이어져 국제 학술회의까지 개최될 정도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중문화 혹은 문화산업 분야에서 BTS 성공의 배경과 원인을 찾고자 한다. 대중문화 차원의 연구들은 민족주의(혹은 자민족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우수성을 밝히는데 치중하거나 상업주의 관점에서 한류의 성공 공식을 찾는 것에만 집중

한다. 대중음악의 비즈니스 전략, 새로운 미디어의 활용, ‘아미’라는 팬덤의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BTS의 매력이라는 종합적이고 근본적 문제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반면 이 시리즈는 ‘BTS가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은 매력의 정체는 무엇일까’를 핵심 질문을 던진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필자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한국의 매력 찾기 즉, 매력적인 한국 정체성 만들기에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중반으로 진입하는 중견국 한국은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물론,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필자들은 미국 팝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대중문화 질서 속에서 변방에 위치한 한국 음악인들이 주류의 일각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상한 매력을 느꼈다. 유사 이래 한토(韓土) 혹은 한반도의 젊은이가 세계를 이만큼 흔들어 놓은 적이 있었던가. 세계 문화 질서사에서 이만한 존재감을 확보한 이가 있었던가. BTS 현상이 일시적 유행과 환상을 넘어서 세계 젊은이들의 공감과 감탄, 열망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자극해 왔다는 점에서 BTS의 매력 찾기는 그 자체로 매력 있는 작업이 된 것이다.

이 시리즈의 집필진은 국제정치학, 사회학, 미디어 연구 등 사회과학 여러 분야 전공자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BTS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정도에서도 천차만별이었다. BTS 열성 팬으로 아미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BTS의 음악이나 동영상을 별로 접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BTS를 접했고, 함께 모여 BTS의 매력을 논의하면서 BTS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의 차이를 빠르게 좁혀 갔다. BTS의 매력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매력에 빠지지 않고서는 그들의 매력을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매력은 이해와 분석을 하기 이전에 느끼는 것이다. 왜 BTS에게 끌리는가를 설명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이미 BTS의 매력에 빠져있다. 하지만 BTS의 매력에 빠진 이유가 모두 같을 리 없다. 그렇지만 서로 다르게 매력을 느끼더라도 BTS가 가진 매력의 원천은 공유할 수 있다. 집필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BTS 매력의 원천을 찾아 설명하는 작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필자들이 BTS의 매력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시각은 전공에 따라 다양했다. 국제정치학에서 BTS의 매력은 소프트 파워 개념에 담긴 국가의 매력과 관련이 깊다. 한편 예술사회학자에게 BTS의 매력은 대중들의 인기를 끌어모으는 예술가의 차별적 정체성이자 창의력의 발현이다. 미디어 연구자에게 BTS의 매력은 팬들이나 비평가들이 이들의 노래와 춤으로부터 얻는 공감과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에 있다. 전공에 따른 시각 차이는 연구 초기에 소통의 어려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다양한 시각들은 오히려 일종의 자극제로서 BTS의 매력에 관한 사고를 풍부하게 해 주었다.

다양한 지적, 전공 배경을 가진 필자들이 모였을 뿐 아니라, 연구대상도 일반적

이지 않은 BTS라는 글로벌 스타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접근과 다소 다르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러 차례 세미나와 토론을 진행했고, 연구진은 BTS 매력의 정체를 설명하기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질문들에 답하고자 노력했다.

첫 질문은 ‘매력이란 무엇인가’였다. 국제관계 연구에서 사용되는 소프트 파워 개념에 대한 독서와 토론을 거치면서 필자들은 미국적 관심과 의도, 목표가 내재해 있는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보다 매력(魅力)이라는 한자가 내포한 의미 그대로 ‘도깨비처럼 마음을 홀리는 힘’으로서 매력에 주목했다. 어떤 대상이 본래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 상대방(관객)이 감지하는 것이 바로 매력이라면, 매력은 자극에 대한 대단히 주관적인 반응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즉, 매력은 대상과 관객 사이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상대방(관객)에 대해 아무리 매력을 덧씌우려 애를 써도 그 자극을 수용하는 관객이 자극을 주는 대상에 관한 상상력을 펼치지 않으면 헛일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BTS와 관객(청자) 사이에는 어떤 소통과 연상이 일어나는 걸까. 후자에게 일관된 정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무엇일까. 이미 해외에서 인기를 얻은 한류 뮤지션들과 BTS 매력은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BTS의 매력을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으로 연결 지을 수 있을까. 매력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후 수많은 후속 질문들이 연달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질문인 한류 일반과 다른 BTS의 차별적 매력이 무엇인가에 답하기 위해 필자들은 한류에 대한 연구들을 찾아 읽고 토론을 이어갔다. 한류의 매력에 대한 논의도 흥미로웠지만, 특히 한류의 문제점들과 한계에 관심이 갔다. 특히 아이돌 시스템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였고, 이는 결국 BTS 스스로가 아이돌을 지향하는 게 아닌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불든다는 점과 연결되기도 했다. BTS 멤버들이 청년 세대로서 자신들의 고민을 가사에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다른 한류 아이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언급이 되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매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BTS가 전 세계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논의는 계속되었다.

셋째 질문은 따라서 BTS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였다. BTS의 노래 가사, 스타일, 퍼포먼스 등에서 BTS의 고유한 매력을 찾고자 토론이 이어졌다. 꾸미지 않고, 진솔하게 고민과 생각을 드러내며, 날 것의 느낌을 주는 노래 가사들과 모습들은 모두 BTS를 BTS답게 하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만 빠져 있지 않고 더 나아가 끊임없이 소통을 시도하며 주변 사람들도 자신들의 고민과 생각을 함께 나누며 더 나은, 더 좋은 삶과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스타일과 퍼포먼스 측면에서 BTS는 멋진 힙합과 댄스가 결합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국어로 한국적인 내용을 담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혼종(hybrid)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 그대로이다.

네 번째 질문은 BTS의 국적성 혹은 탈국적성이다. BTS는 많은 노래를 한국어로 부르고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가사에 포함되었지만, 세계의 BTS 팬들은 이들이 단순히 한국적이기 때문에 BTS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BTS를 민족주의 관점에서 한류

의 대표주자로 내세우는 것이 어색한 이유이다. BTS는 한국의 특수한 처지를 장으로 하여 보편적 메시지를 과감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때 한국의 특수성이란 한 세기 이전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한국에 남긴 상처로부터 70년 전 전쟁터였던 한반도에서 엮힌 열강들의 불행한 과거, 21세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그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의미한다. 전 세계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메시지를 한국의 특수한 이야기와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의 복잡한 관계는 한국 소프트 파워 관점에서 BTS를 생각할 때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 시리즈의 필진 일부는 십 수 년전부터 미국의 제국적 관심에서 비롯된 소프트파워론을 비판하며 한국의 매력론을 모색해 왔다. <21세기 매력국가 만들기>(2005),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2007),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2009) 등을 통해 중견국 한국에 적실성이 있는 매력 개념과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¹⁾ BTS 연구는 이러한 지적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21세기 중반을 향하는 중견국의 보편과 특수의 매력적 결합 모델을 제시하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함께 읽고 토론하며 다듬은 문제의식에 전공별 시각을 적용해서 집필자들은 BTS의 글로벌 매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에서 한 준은 BTS의 매력이 글로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의 거시적 환경변화를 기존의 연구 문헌과 역사적 연구의 검토를 통해 다음 네 가지로 제시했다: 중심-주변의 재편성이라는 글로벌 문화의 변화, 문화적 위계 약화와 잡식성 취향의 등장, 문화적 가치로서 혼종과 진정성의 결합, 그리고 디지털 개인 미디어의 등장. 문화예술의 거시적 환경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BTS의 매력이 맥락 의존적임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맥락이 매력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에 이 글은 주로 BTS의 매력이 적극 수용될 조건이 만들어진 과정을 따져본다.

제2장에서 최셋별은 BTS의 매력의 근원을 BTS가 일반적인 케이팝 아이돌이 아닌 진정성을 지닌 아티스트로 차별적으로 자리매김한 것에서 찾았다. 최셋별은 BTS에 대한 신문 기사들을 분석해서 거시적 환경 변화 속에서 BTS의 매력 형성에 기여한 요인을 예술사회학의 문화 다이아몬드 모형에 따라 BTS의 탁월한 역량, 한국의 케이팝 생산 시스템과 글로벌 케이팝 플랫폼,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열성 글로벌 팬덤인 아미,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결합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 하영선은 BTS 매력의 조건이나 영향 요인보다 그들 매력의 본질에 집중해서 그 핵심을 단순한 혼종이 아닌 현대 문명의 한계를 고쳐 보려는 21세기 신문명 건축의 전위로서 보여주는 복합의 아름다움에서 찾는다. 하영선은 BTS의 매력이 단지 인기 있는 대중음악 뮤지션으로 우수성만이 아니라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의 문명적 무게감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하영선은 BTS의 히트곡인 'FAKE LOVE'에서 출발해서 이들의 노래를 꿰뚫는 진정한 자기애와 공생의 모색이 문명의 자기모순 극복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가치와 공명함을 주장한다.

제4장에서 김수정은 BTS가 발효한 곡들의 가사 분석을 통해 BTS가 가진 다양한 메시지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며 전 세계 팬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상세하게 보여준다. 김수정에 따르면 BTS 노래의 가사에 등장하는 주제로는 진정성, 유대의식, 향상심과 온전한 삶에 대한 열망 등이 중요하다. 김수정은 진정성을 담은 자신들만의 이야기로 시대정신과 세대 정서 측면에서 청년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BTS 매력의 핵심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영선과 김수정의 접근이 해석적이라면 안미향과 이해은의 접근은 내용 분석이다. 제5장에서 이해은은 2020년 발표된 BTS의 신곡인 ‘Dynamite’와 ‘Stay Gold’의 유튜브에 달린 글로벌 댓글들의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했다. 영어로 부른 첫 곡이자 BTS의 이제까지 가장 히트 곡인 ‘Dynamite’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Stay Gold’에 대한 댓글의 비교를 통해 이해은은 댓글이 팬들 간의 소통보다는 BTS에 대한 팬심 표현의 수단으로 주로 이용됨을 밝혔다. 특히 댓글로 표출된 팬심이 히트곡인 ‘Dynamite’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Stay Gold’까지 확산됨을 보여준다.

제6장 안미향의 내용 분석 텍스트는 미국의 대중음악 전문 매체인 빌보드의 기사이다. 안미향이 분석한 텍스트가 보다 전통적인 매체이고 필자가 전문 칼럼니스트나 기자인 반면, 이해은이 분석한 텍스트는 온라인 매체에 일반인들이 달은 댓글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안미향은 빌보드에 실린 BTS 기사 수가 꾸준히 늘어나다가 2017년을 전환점으로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안미향은 케이팝 아이돌과 BTS의 차별성에 대한 기사들이 스타일, 메시지, 창작과 콜라보 등의 측면을 중심으로 늘어났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BTS에 대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기사 비중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제7장에서 전재성은 BTS의 글로벌 매력 발휘 속에서 이들의 국적성이 갖는 의미와 그것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위한 노력에 갖는 시사점을 다룬다. BTS 매력의 글로벌 보편성이 한국인 정체성을 숨기지 않되 이를 앞세워 주장하지 않는 데에 있음을 전재성은 주목하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향한 노력도 민족주의나 국가이익에 치중하기보다 보편적 이익과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BTS의 매력이 보편적 메시지를 특수성의 디테일을 살려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한 것에 있음을 전재성은 소프트 파워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제8장에서 손 열은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BTS의 매력이라는 현상이 갖는 정책적 시사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한류 외교가 보인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한 후, 공공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확대하려면 홍보보다 공감과 소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BTS의 매력이 가져다주는 매력 공공외교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스토리텔링의 힘에 대한 주목, 향상심 자극과 연대의식 고양의 노력, 보편적 메시지 발신의 중요성, 취향 공동체의 연계와 확대 전략, 초국적 문화 네트워크의 형성,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공공외교 전략 수립이 그것이다.

이 시리즈는 BTS의 매력을 다룬 학술 연구서이다. 하지만 필자들은 이 시리즈의 독자를 학자로 한정하고 쓰지 않았다. BTS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아미일 것이다. BTS의 일상에서부터 창작과 공연에 이르는 모든 생활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BTS는 아미의 전유물이 아닌 세계 모든 이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필자들은 학자들 뿐만 아니라 BTS의 팬들과 BTS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 모두를 독자로 생각하고 이 시리즈를 함께 썼다. 잠재적 독자층이 넓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내용과 표현 모두 익숙한 학술적 글쓰기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독자층에게 읽힐 수 있는 시리즈가 되도록 노력했다. 이제 그 평가는 오롯이 독자의 몫이다.

이 시리즈의 기획 아이디어는 2019년 봄 동아시아연구원 하영선 이사장님과 필자 일부의 미국행 기내 대화에서 나왔다. 미국뿐 아니라 지구적 수준에서 전개되는 BTS 현상이 국제정치학도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라는 점, 국가적으로 제2, 제3의 BTS를 키우기 위해서는 BTS 매력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는 점, 끝으로 BTS 자신들의 지속적 성장과 진화를 위해서도 사회과학적 분석과 제언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 시리즈가 나오게 되기까지의 배경이다. 이를 받아 BTS 현상이란 현재 진행형 사안을 기꺼이 연구 대상으로 삼겠다는 다짐 하에 일급 연구진이 모였고, 동아시아연구원 후원자 그룹은 흔쾌히 재정 지원을 약속하였다. 시리즈의 제작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연구회 진행, 원고 정리와 편집 과정에서 전주현 연구원과 서주원 연구원의 노고가 없었다면 이 시리즈가 온전히 나오기 어려웠을 터라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1) 김상배 편. 2005. 『21세기 매력국가 만들기』. 서울: 동아일보.; 손열 편. 2007.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서울: 지식마당.; 김상배 편. 2009.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 서울: 지식마당.

■ **저자: 손열** 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2012)을 지냈다. Fu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아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 최근 저서로는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019), 32, 6, 『한국의 중견국외교』 (2017, 공편) 등이 있다.

■ **저자: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삶의질학회 회장이다. 주요 논저로는 『4차 산업혁명, 일과 경업을 바꾸다』 (2018), 『커넥트 파워: 초연결 세상은 비즈니스 판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2019)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Recognition in Art World as Social Process: The Case of Oscar and Daejong Film Awards(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017)", "사회과학에서의 복잡계 연구: 창발과 적응 지형을 중심으로"(새물리, 2017),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분석 연구"(2017), "평가 지표는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어떻게 바꾸는가: 사회학을 중심으로"(2017) 등이 있다.

■ **편집: 진주현**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4) jhjun@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0년 12월 16일

[BTS매력론] BTS의 글로벌 매력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하며: BTS 글로벌 매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979-11-6617-073-7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